

액션·드라마·공포...여름 극장가, 뜨겁고 서늘하게 즐겨보자

막바지에 접어든 올여름 성수기 극장가에서 한국 상업영화 두 편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두 편이 한꺼번에 개봉해 한판 대결을 벌인다.

2024 파리올림픽 폐막과 광복절 휴일이 맞물린 결과로, 개봉작 장르도 다양해 예비 관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여름 성수기 막판 다시 뜨거워지는 극장가

11일 극장가에 따르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조정석·이선균·유재명 주연의 '행복의 나라', 이혜리 주연의 '빅토리',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트위스터스', '에이리언: 로블루스' 등 네 편이 동시에 개봉한다.

모두 만만치 않은 흥행 잠재력을 가진 기대작들이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를 극장가의 전통적인 여름 성수기로 볼 때 그 끝자락에 기대작 네 편이 한꺼번에 선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파리올림픽이 폐막하면서 스포츠에 쏠렸던 대중의 관심이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에 광복절 휴일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광복절은 관객이 물리는 금요일과 주말로 이어져 흥행을 노리는 배급사로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다.

'행복의 나라'는 천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의 추창민 감독이 연출한 법정물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암살당한 1979년 10·26 사건 당시 김재규의 수행비서관으로 사건에 연루돼 처형된 박흥주 육군 대령의 재판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했다.

배우 조정석이 박흥주를 모티브로 한 박태주(이선균 분)의 변호인 정인후 역을 맡아 호소력 있는



'행복의 나라'·'빅토리'·'트위스터스'·'에이리언' 기대작 4편 개봉

'탈주'·'헐스가이즈'·'파일럿' 등 손익분기점 넘은 영화도 속속 등장

연기를 펼친다. 지난달 31일 개봉한 '파일럿'에서 코믹 연기를 한 조정석의 변신도 볼거리다.

로맨틱 코미디 '싱글 인 서울'(2023)을 연출한 박범수 감독의 '빅토리'는 세기말인 1999년 경남 거제의 고등학교생들이 치어리더 동아리를 결성한 이야기를 담은 청춘 드라마다.

치어리더 동아리의 열띤 응원이 스크린을 넘어 감동과 희망을 준다. 절그룹 출신 이혜리가 연기뿐 아니라 댄스 실력도 발휘한다.

'트위스터스'는 배우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미나리'(2021)를 연출한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의 신작으로 '트위스터

(1996)의 속편 격인 재난 영화다. 미국 오를라호마주 평원을 배경으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를 첨단 시각특수효과(VFX) 기술로 생생하게 구현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는 청년들의 열정을 그렸다.

'에이리언: 로블루스'는 할리우드의 SF 공포영화 시리즈 '에이리언'의 일곱 번째 작품으로, 1편인 '에이리언'(1979)과 '에이리언 2'의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페데 알바레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아직 시사회를 열지 않아 베일에 싸여 있지만, 예고편을 통해 전작들 못지않은 스타일과 공포를 예고했다.

이들 네 편은 극장가에서 흥행몰이하고 있는 조정석 주연의 '파일럿', 지난 7일 개봉한 전도연 주연의 '리블러', 마블 블록버스터 '데드풀과 울버린' 등과 경합을 벌이게 된다.

기대작 네 편이 동시에 극장에 걸리면서 지난해 여름 한국 영화 '비공식작전'과 '더 문'이 같은 날 개봉해 출혈 경쟁으로 돌 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탈주'·'헐스가이즈'·'파일럿' 웃고 '탈출' 울었다
올여름 성수기를 맞아 일찌감치 개봉한 영화들은

성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3일 개봉한 이제훈·구교환 주연의 '탈주'는 흥행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누적 관객 수가 손익분기점(200만명)을 뛰어넘은 데 이어 최근 250만명도 돌파했다. 최전방 북한 군인이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탈출하는 이야기인 '탈주'는 산과 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추격전에 강도 높은 액션이 곁들여져 호평받았다.

앞서 6월 26일 극장에 걸린 이성민·이희준 주연의 코미디 '헐스가이즈'도 손익분기점(110만명)을 넘어 18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았다.

흥행몰이 중인 '파일럿'도 손익분기점(220만명)을 돌파하고 빠르게 관객 수를 늘려가고 있다. 극장가에선 '파일럿'이 신작들의 공세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최종 관객 수 500만~600만명은 기대해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린이 관객과 부모를 불러들이면서 극장가의 북병으로 떠오른 한국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츨망'의 선전도 눈에 띈다.

쓴맛을 본 것은 이선균 주연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다. 올여름 한국 영화로는 제작비 규모가 가장 큰 작품인데도 누적 관객 수가 70만명에도 못 미쳤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데드풀과 울버린'은 글로벌 흥행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선 아직 200만명도 동원하지 못해 고전하는 양상이다.

6월 12일 개봉해 극장가를 지배했던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처럼 크게 흥행몰이한 작품이 없었던 지난달 전체 누적 관객 수는 1203만 명으로 작년 7월(1428만명)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탈주'와 '헐스가이즈', '파일럿'과 같이 손익분기점을 넘은 한국 영화가 잇달아 나온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올림픽 끝나고 신작 드라마 쏟아진다

TV 채널·OTT 편성...다양한 장르 골라보는 재미 가득

JTBC '가족X멜로', ENA '유어 아나', KBS 2TV '완벽한 가족', 디즈니+ 오리지널 '폭군', MBC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Black Out)', tvN '엄마친구야들', TV조선 'DNA러버'.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TV 채널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신작 드라마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기간 드라마를 편성하지 않던 방송사들까지 11일(현지시간) 올림픽 폐막 직후 신작을 내놓는다.

방송가에 따르면 MBC와 KBS, ENA, TV조선은 최근까지 드라마 편성을 비워왔던 요일과 시간에 각각 한 편씩 드라마를 편성했다.

MBC는 올해 7월 6일 2부작 단막극 '나는 돈가스가 싫어요' 이후 한 달가량 금토드라마를 편성하

지 않다가 오는 16일 오후 9시 50분 변요한 주연의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이하 '백설공주에게') 첫 방송을 한다.

KBS는 14일부터 2TV에서 김병철과 윤세아가 부부로 출연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완벽한 가족'을 방송한다. KBS가 수목드라마를 편성한 것은 재방송을 제외하면 2022년 11~12월 '드라마스페셜 2022' 이후 처음이다.

ENA 역시 지난 6월 '크래시'가 종영한 이래 비워뒀던 월화 저녁 시간대에 2개월 만에 새 드라마 '유어 아나'를 편성했다.

TV조선은 올해 2월 '나의 해피엔드' 종영 이후 토일드라마를 편성하지 않다가 6개월 만인 이달 17일부터 'DNA러버'를 방송한다. 최시원과 정인선 주연의 'DNA러버'는 유전자 연구원인 주인공이 유전자를 통해 짝을 찾는다는 내용의 로맨틱 코

미디다. JTBC와 tvN도 새 주말드라마를 올림픽 폐막을 전후로 내놓는다. 이들 두 방송사는 올림픽 기간에도 계속 드라마 편성을 이어왔지만, 기존 드라마가 종영하고 새 작품이 시작하는 시기가 올림픽 종료와 맞물렸다.

JTBC는 지난 4일 종영한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후속으로 이달 10일 주말드라마 '가족X멜로' 첫 방송을 했다. 지진희와 김지수가 주연인 '가족X멜로'는 잇단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전남편이 11년 만에 건물주가 돼 돌아온다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다.

tvN은 11일까지 '감사합니다'를 방영한 뒤 17일부터는 로맨틱 코미디 '엄마친구야들'을 방송한다. 정해인과 전소민이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아는 친구 사이라는 설정으로, 최고 12%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유제원 감독과 신하는 작가가 손을 잡았다.

글로벌 OTT 디즈니+ 역시 이달 14일 새 드라마 '폭군'을 내놓는다. 4부작인 '폭군'은 영화 '신세계'(2012)와 '귀공자'(2023) 등을 연출한 박훈정 감독의 첫 시리즈 연출작이다. /연합뉴스

르세라핌 '스마트', 스포티파이 2억 스트리밍

'퍼펙트 나이트' 리믹스 음원 발표

걸그룹 르세라핌(사진)의 세 번째 미니앨범 수록곡 '스마트'(Smart)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2억회를 기록했다고 소속사 쏘스뮤직이 지난 10일 밝혔다.

'스마트'는 앨범의 타이틀곡이 아닌데도 발매 6개월 만에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스포티파이에서 1억회 이상 스트리밍된 르세라핌의 노래는 '스마트'를 비롯해 '이지'(EASY), '퍼펙트 나이트'(Perfect Night), '언포기븐'(UNFORGIVEN) 등 총 10곡이다.

르세라핌은 이날 정오 공식 팬덤명 '피어나'(FEARNOT) 공개 2주년을 맞아 '퍼펙트 나이트' 리믹스 음원도 발표했다. 이 음원은 원곡을 트로피컬 하우스 스타일로 편곡한 것으로, /연합뉴스



여름에 걸맞은 청량감이 돋보인다. 르세라핌은 오는 30일 오후 1시 네 번째 미니앨범 '크레이지'(CRAZY)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